



- 주안에 힐링캠프
- 양육훈련 감사회
- 교회협의회 소식
- 칼럼/교육부 이벤트

'Hugging is Healing'



힐링캠프 2기 170여명 '기쁨 충만'

주안에교회 제 2기 힐링캠프가 11월 9일(주일)부터 11월 12일(수)까지 3박 4일간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진행되었다. Seekers 84명, Supporters 90명이 참석하였으며 점점 변화하고 발전되는 힐링캠프를 경험하였다.

2기 힐링캠프는 한국, 캐나다, 탈북 여성과 타교회를 출석하시는 다수의 Seekers들이 참가하였다. 어느 곳에서 왔건, 개인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건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을 감격가운데 만났고, 불교인이거나 교회를 다녀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단하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자리였다.

2기 힐링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치유와 회복,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이루어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현상이 주안에 힐링캠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미 타

캠프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하여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시고 회복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주안에 힐링캠프가 대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Seekers, Supporters 모든 참가자를 만나주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사역임을 확신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성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간증문 6, 7면>

| 김경일 기자 |

■ 최혁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취임



“예수님 발자취 따라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주셔서 회장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섬기겠습니다. 주의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주님의 손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혁 담임목사의 제 45대 남가주교회협의회 취임 감사예배가 11월 16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밸리채플 본당에서 열렸다. 주안예교회 성도들과 남가주 교계와 제임스 안 LA한인회장 등 사회단체 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감사예

배는 백중윤 교협 부회장의 사회로 연합성가대의 찬양과 세계복음회 이병희 목사의 ‘섬기는 종이 되자’라는 설교가 있었다.

최혁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셨던 발자취의 분이 되는 교협이 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형 LA시 커미셔너협회 고문이 에릭 가세티 시장의 감사패를 최혁 신임회장에게 전달했으며 허브 웨슨 시의장, 김현명 총영사 등 축하 메시지도 있었다.

(사진: 크리스천비전 이현욱 기자)



✧ 12월 목회계획표

12/7(주일). 구역모임 / 추가제직훈련(밸리채플)
12/9(화). 리더뱅크
12/10(수). 추가제직훈련 (밸리/비전채플)

12/13(토). 추가제직훈련(비전채플)
12/21(주일). 성탄감사예배
12/25(목). 성탄절 Outreach
[25(목)/26(금) 목/금 영성집회 및 새벽예배

(12/25)는 쉽니다.]

12/29(월)~1/3(토). 신년특별집회
[밸리: 새벽(월-토), 세리토스: 저녁(월-금)]

■ 양육훈련 감사회



성경통독 84명 · 주안에삶 26명 수료 “축하합니다”

주안예교회 평신도사역원에서 진행하는 성경통독 프로그램인 ‘주안에삶’ 2기(2014년 7~11월) 18주과정 수료자와 ‘주안에삶’ 5기(밸리채플은 3기) 이수자 감사예배가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세리토스채플에서 열렸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통독프로그램을 마친 84명(밸리 47명, 세리토스 37명)과 주안에삶 3권까지 마친 이수자 26명(밸리 17명, 세리토스 9

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간증이 있었다.

주안예교회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동안 평신도사역원에서 진행한 3개 훈련과정인 주안에삶, 주안에삶, 주안에생명(종말론)을 이수한 성도들은 연인원 724명으로 집계됐다. 각 프로그램이 이제 본 궤도에 진입, 2015년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한다. <간증문 4, 5면>



밸리채플 수요 성경통독을 마치고...

■ 추수감사주일예배



절망적 상황은 축복의 재료... 감사의 씨앗을 심자

“불평과 감사는 씨앗입니다,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 오는 씨앗입니다. 비록 감사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무거운 발걸음을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높은 곳

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축복의 재료입니다” 2014년 주안예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16일 주일에 열렸다. 밸리와 세리토스 채플에 온갖 과일과 채소 장식을 하고, 한해 동안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 드렸다.

하박국 3장을 본문으로 ‘비록 감사’라는 최혁 담임목사의 메시지와 청년부의 바디워십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중고등부의 찬양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연합성가대의 플래시몹 스타일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 조용대 기자 |

■ 양육훈련을 수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간의 교제에 다소 어려움을 겪다보니 거의 매일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나만의 삶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이 하게 되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하나요?”

특히 성경공부 CLASS를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제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풍요로운 삶 CLASS를 간절히 기다렸었고 마침내 수업에 등록하였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하고 싶어 매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고했고 리더의 지시에 따라 소감문이며 설교말씀 정리 등을 정성껏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사탄 마귀는 환경으로 날 함들게 하며 공부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곤 하면서 저를 주저앉게 만

치유와 영적전쟁
말씀의 삶으로 인도



오윤선 집사 (벨리 주삼 3권 수료)

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여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고보서 4:7) 이것은 마치 세상을 이긴 승리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영적전쟁이 왜 내겐 이렇게 심하나요?’ 라고 목사님께 질문했을 때 “너무 착해서...딩동댕~“이라 하신 목사님의 대답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대답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내 입술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승리감을 만끽하며 내 마음과 영혼은 기쁨과 평온함 속에서 제 3권의 시작을 기다리며 그 동안 배운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3권은 시작되었고 어느새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형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 같고 아침 일찍 일어나 찬양과 기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여 내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기쁨은 그날에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추이듯 평안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었던 거룩한 독서 2권일 때와는 달리 3권에서는 매일 한 장씩 정독하며 그날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매 과 끝날 때마다 쓰는 소감문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어떻게 생활해 가야하는 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궁금중에 대한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셨음을 깨달아 봅니다. 무엇이든 알고 싶은 마음으로 임했던 풍요로운 삶의 과정은 저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숙과 남편과 사람들에 대한 신뢰 또한 더욱 크게 해 주셨고 나의 몇 년 전의 기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도우심에 매달렸습니다.

1권의 과정은 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었고, 2권은 나의 문제점의 근본원인이 영적전쟁이었으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

성경통독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전 늘 부러웠습니다. 주안예교회에 들어와서 보니 먼저 앞서 1기 성경통독 반이 있었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다음 2기는 꼭 통독을 하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이 오묘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되었으나 욕심은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런 중에 2기 성경통독반이 오픈되었고 전 한결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장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었고 뜨거움과 기쁨,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려 읽어내려갈수가 없어서 소리צוע 남들 볼까봐 흐느껴 울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쁨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편 81편 9절 말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늘 시시때때로 목사님을 통하여 라디오를 통하여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말씀으로 남아있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팠고 아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감사의 눈물도 기뻐했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장, 아들 솔로몬을 신랑이 낳자마자 이름을 솔로몬으로 호적에 올리고 참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아주 씩씩하게 솔로몬이라 이름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싫었습니다. 솔로몬은 학교 다니는 내내 이름으로 놀림을 당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전혀 이름으로 놀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아주 큰소리로 낭독했고 성전과 지혜의 왕 하나님이 이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 들으시라고 크게 읽어내려가는 중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What's your name? 하나님이 이 부분은 흐흐... 보지 말아주세요 네? 기도했습니다. 이 곳 주안예교회 최혁 목사님 만나 말씀으로 치유와 변화 너무 부끄러운 제 자신이 주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감동
옆사람 몰래 흐느껴



강혜숙 사모 (세리토스 통독 2기)

마켓 다니는 일이 제 직업입니다. 한 예로 어쩌다 물건이 잘못 들어오면 칼 같이 따져서 찾아오면서 더 물건 박스가 들어오면 기분 좋아 오~에 땀구 입 싹 닦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부끄러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 믿은지 20년 이상이 됐는데도 예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실까 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았으면 예수자랑 하고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내 손에는 CD가 들려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한테 놀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자랑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품어주시어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 양육훈련을 수료하고...

통독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끝날까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끝날 때가 되어오니 시원한 마음보다는 아쉬움이 앞선답니다.

실은 혼자 할 때는 구약의 지리한 부분을 넘기기가 힘들어 중도하차를 여러번 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 지체들과 하니 재미가 나고 언제 다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보니 시간의 소중함, 자투리 시간까지도 잘 재단하여 더 많이 읽고, 외우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는 죄목사님의 설교말씀과 만나 이해하기가 쉬우니 마치 동화책 읽는 것처럼 말씀에 몰입하게 되고 낯설었던 구약이 친구처럼 느껴지게 되고, 말씀을 접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듯이 빠져들게 되고, 암송했던 말씀들도 다시 외우게 되고, 더욱 가까운 벗이

뒀에 기쁘고 말씀은 내 발에 들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목상을 하니 지성, 이성, 감성이 총동원하여 제가 마치 영화감독처럼, 말씀의 PD가 되니 매말라 가는 제 영혼이 춤추는듯한 환희가 느껴지며 거룩하게 실천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

나니 평범한 일상생활도 지리하지가 않고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호흡하는 순간이 감사하고 하늘이 주신 선물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끌어들여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재미 있게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 마음 속의 언어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나오듯이 감사만이 제 영혼을 적셔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감동의 여운이 남게 된답니다. 정원의 보름달만큼 환하고 둥근 마음이 되게...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이 통독을 통해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에 통로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와 그동안 인도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정도영 장로님, 또 수술하시느라 다 못하셨지만 김용수 장로님, 또 이재조, 주석희 전도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제 마음의 일부라도 드렸습니다.



김헬렌 권사 (벨리 통독 2기)

더 많이 읽고 외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처음 풍요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는 막연히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였다. 시작부터 나눔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지 않았던 방식에 조금 새롭긴 했으나, 다른 이의 신앙 간증으로 인해 함께 간접적으로 체험과 성장을 할수 있고, 훈련 기간 중에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중보 할수 있어서 소그룹 성경공부로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정을 거치면서 쉽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도전이 된 부분도 있었다. 쉽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사실, 지식으로만 알던 부분들이 많았다. 이 훈련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하여 체험으로 부딪히는 시간이 되었다.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homeless 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주는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돈으로 술을 사마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도움을 주기도 했다.

Homeless를 도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도 했다.

물병과 간식에 성경구절을 적어서 나눠줘 볼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햄버거를 사주며 잠깐이라도 얘기를 나눠야 하나 하고 고민은 했으나 실천으로 옮기진 못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그냥 지나치기가 미안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훈련의 시간이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졌기에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중에 증거할 기회도 있었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세상에 NO라고 외치며 손해 본 적도 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기도 했다. 한국에 잠깐 있는 동안 8개월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시간동안 나는 경력을 쌓으려고 갔었는데, 돌아보니 기억 나는 것은 첫날과 마지막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만나게 한 과장님이 있었다. 그 과장님은 재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려움들을 나에게 털어 놓곤 했다. 그 남편과 시댁이 기독교인인데,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믿음에 실망하고 있었다. 본인도 복음은 들었고 교회도 다닌 적은 있는데, 접을 보고 나서 곳을 하라고 했다는 말에 삼백만원 짜리 곳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었다. 기가 막힌 일이었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 나지는 않는데, 분명 성령님이 내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셨다. 나는 그 과장님으로부터 절대 곳은 하지 않기로 약속 받았고,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옆에 보내주신 것 같다고 말해줬다.

훈련 중에 넘어지고 실패도 경험했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나를 다 내려 놓을 수가 없었다. 약 1년 정도 넘는 시간동안 시부모님처럼 같이 살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돌아보니 나는 상처 받지 않기 위해 나를 몇겹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어른이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물었다. 가끔 만나서 선을 베풀고 인내 하는것은 가능 할것 같은데, 함께 살면서 마음을 나누고 다 내어 주는 것은 불가능 해 보였다.

(6면에 계속)

3년의 훈련기간 변화된 나의 삶 발견



류명수 집사 (세리토스 주삼 3권 수료)

■ Seekers 간증



‘마음에 새겨진 말씀’ TD와 전혀 다른 경험

주안예교회 “힐링캠프 2기”를 다녀오면서 힐링 캠프가 왜 힐링(치유)이 되었는지와 그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힐링캠프가 3박 4일동안 가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교회에서 하는 또 다른 성경 공부인줄만 알고 신청을 했다가 신청지에 아주 작게 쓰여져 있던 참가비 \$200.00을 보고나서 심각했습니다. 이번년도 후반에 오면서 사업이 힘들어져 재정이 안좋아졌기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는 것에 민감한 상황이라 처음에 신청을 취소했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 한국 방문 중이어서 전화로 여기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의 조언에(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잔소리라만 듣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돕는 배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감동을 받아 다시 Seeker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힐링캠프에 올라가기 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에 TD(Tres Dias)의 Candidate와 Team Member



로 다녀와서 그와 비슷한 힐링캠프를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그날까지도 힐링캠프를 진행하는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상처를 받아 캠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곳에서 모든 것에 힐링을 받고 TD와는 전혀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곳에서 힐링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잘 참석하였다 생각하였으며 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힐링캠프에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이야기지만 “힐링캠프”에 참석

한 사람들은 조별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 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모두 11개의 조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 ” 안에 있는 글들이 조 이름 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7공주”들이 있었습니다. “주 만나”라고 하는 말에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 “주 안에 여인들”이 되어 열심히 섬기며 주님과 짝꿍이 되어 “주짜꿍”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안예교회 힐링캠프에 참석하여 “성령왕장” 받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바보들 “하사보”가 되어 가진 것 모두 “다드림”하면서 “주님 스타일”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니 하나님과 함께한 8명의 미녀 “8 Beauties and God” 이 보였습니다. 7명인줄 알았는데 8명이 보인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8번째 미는 여자가 아닌 ‘미의 기준’ 자체였습니다. ‘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하나임” 즉 마지막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주안의 방주”를 타고 천국에 이를 때 같이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 남성우 집사 |

(5면서 계속)

많이 가진 자가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의 무엇을 주라는 거냐고, 교회 안에서도 남에게는 선한 말과 행동이 쉽다. 특별히 가족에게 인정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서 여전히 큰 도전이다. 내 가정에서는 그것이 아직도 어렵게 느껴진다.

한국에서 돌아와 나는 심한 우울감에 빠졌다. 한국으로 갈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라도 선교지로 생각하며 자신 있었는데, 돌아보니 말씀과 기도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이 약해져서 돌아왔다. 직장 상사와 시댁에서 인격적으로 대우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언어

로 인한 상처를 내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난 우울감에 빠져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수 없었다. 남편도 부모님도 그런 나를 다 이해해 주지 않아 외로웠고, 함께 기도해 주고 응원해주던 구역식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그 어려움 가운데 붙들 것은 말씀과 기도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으로 다시 이어졌다.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로 가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 죄송했다.

실패의 경험 이후 풍삼 3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

다. 공부하면서 특히 좋았던 점은 숙제를 통해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이 그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제를 경험했다.

응답 될 때까지 해 주시는 기도와 진심으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로 함께 해 주신 훈련생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 밖에 없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기도의 동역자들도 이 훈련을 통해 주셨다. 이제 나는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고, 허락하신 핍박도 잘 감당하며, 힘써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수십년간의 얽매임에서 완전한 자유와 쉼

할렐루야 이번 힐링캠프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힐링하고 돌아온 조이메기입니다.

힐링캠프가기 전 저의 기도 제목은 자유와 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이번 힐링캠프를 통하여 허락하셨고 치유받은 열명의 문둥병자 중 돌아와 주님께 감사한 한명의 문둥병자의 마음으로 이 글을 주님께 올립니다.

다 용서해도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만은 용서할 수 없다며 버틴 저를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만져주셨습니다.

14살.. 아버지의 10년동안 지속되었던 외도로 어머니는 오남매 앞에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껍딱지였던 막내인 저는 그 순간부터 반항하기 시작했고 내 안의 병든 마음을 보이기 싫어 강한척 터프한척 가면을 쓰고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남매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아버지를 용서 하셨지만 그때의 상처로 항상 한 많은 낯두리를 쏟아내셨습니다.

‘남자란 믿을 존재가 못된다’ 라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자란 저에게 남자는 언젠가 나를 떠나 버릴 존재였고 끊임없이 사랑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버리기 전에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버려야 했던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싶었고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잊기위해 마약까지 사용하며 나를 파괴시킨 딸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비천하고 죄 많은 저를 주님이 씻어주셨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제작년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가 늙고 병든 모습으로 제 품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 사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제 알지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어 울면서

매달려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년반을 아버지와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몇일은 잠잠하나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쓴 뿌리는 아버지와 절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견딜 수 없어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해결 받고자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캠프를 앞둔 몇일 전 주님이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주셨고 아버지와 형제모두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랑한 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치유와 회복이 저희 가정에 기적같이 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셨고 주님으로 부터 멀리 가 있던 형제들이 주님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캠프가기 전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올라간 힐링캠프. 캠프를 통해 팔 벌려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자연 속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 너무도 귀한 은혜의 시간 힐링의 시간들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서포터즈들의 섬김과 사랑안에 우릴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듬뿍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을 하기까지 또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나의 과거를 통해 나를 씻으시고 다듬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여정 길에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포기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값을 수 없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체험케 하신 주님께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통해 저를 자유케하신 주님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빛진자로 남김없이 후회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준 주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조이메기 집사 |



■ 한해를 되돌아보며...

AWANA · EIKON · 한국학교 등 하반기 알찬 마무리

벌써 2014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아침차게 시작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교육부의 1년을 정산하는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있다.

하반기 시작한 AWANA를 시작으로 EIKON과 한글학교까지 지난 주 하반기 학기 마감과 함께 1년을 정산하였다.

참여하는 학생에 비해 돕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소 걱정스럽게 시작했던 모든 PROGRAM은 역시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참가한 학생이나 이들을 섬겼던 손길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장한 모습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지난 상반기때 그들만의 잔치로 치뤄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EKON 발표회는 지난번보다 좀더 다듬어진 연출을 통해 뮤지컬로 우리를 즐겁게 했다.

항상 느끼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셔서 매년 우리의 헌신이 좀 부족할지라도 되돌려주시기를 복에 복이 더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린다.

한편 지난 12월 6일 5:30PM 벨리 채플에서 교육부 BANQUET이 있었다. 여러 방법과 각자 갖고 있는 은사대로 힘을 모아 교육부를 앞에서 끌기도 하고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

며 2015년을 항상 새로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 집중하고 산들 이와같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 아이들의 겨울수련회가 벨리채플에서 있을 예정이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안 수련회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우리는 생각이 많아진다. 올 한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손에는 무엇이 남았는지...

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취하게 만든다. 아니 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누구는 술에 취하고 누구는 사랑에 취하고... 세상이 무엇에 취해 살던지 우리 그들과 달랐으면 한다. 그들이 술에 취하고 여흥에 취하고 성공에 취해 삶을 망각할 때 우리 성령에 취해 세상살이로 부터 자유하며 삶을 망각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찾아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삶에 지칠 때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맑은 눈의 자녀들과 눈을 맞추면 있었던 사명과 목적을 되찾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그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하루 하루가 달라지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교육부는 이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사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 아이들 맡기는 탁아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우리 입버릇처럼 “내가 너 때문에...”라든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내가..”라고 읊조리지만 정녕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문해보자. 정녕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해서 얻는 최상은 성공한 무엇무엇일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성공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 그 가정에 다시 새생명이 자라는 세월을 그려본다. 우리 교회가 그들의 성장드라마에 배경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혹 교육부를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동안 머무는 쉼터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생각에 잠긴다.

2014년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한 주안교회에서 당연히 교육부도 성장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래서 2015년을 더욱 기대해 본다. 비운 뒤 땅이 굳고, 비개인 오후 햇살이 눈부시듯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우리 아이들의 큰 꿈을 펼치기에 작지 않은 꿈을 주안에 교회에서 내어주길 기대하고 기대한다.

| 채은영 기자 |

주안에 교우 비즈니스 소개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FD 1134

Daniel Ahn
Counselor
Cerritos & Norwalk

12325 E. Rosecrans Ave.
Norwalk, CA 90650
daniel@HankookMortuary.com

Tel: 562.868.0788
Cell: 213.507.1313
Fax: 562.868.2808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HISCO 히스코 자동차 그룹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가격

“주안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하신 차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대표
권 문 상 (Joshua Kwon)
Dealer Number : 85071

- ◆ 모든차 구입과 리스
- ◆ 정직하고 숨김없이 말씀드립니다
- ◆ 원하시는 곳에 직접 배달 드립니다.
- ◆ 일반승용차부터 큰 트럭까지 전차종 취급



hiscoauto@gmail.com | Cell : 714-357-7070 | Phone : 310-539-7979

John Koo
General contractor
949 374 0311
jkoo89@hotmail.com



All Goodman Construction Co.
Sincere, Honest, Experience, Knowledge, Trend, Sense

Addition, Remodeling, New const., Landscape Repair, Maintenance, Any type of construction

Lic # 965466
Bond, Insured, Warranty



추수감사주일 뱅킷



탈렌트쇼



할렐루야나잇



EIKON 뮤지컬 녹음현장



AWANA

■ 성경 속의 여성들(3)

진정한 ‘핑크 리더십’ 드보라의 삶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유일 무이한 여성 사사가 바로 “드보라”다. 여성이 절대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당하던 시절 여자 사사는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시절 백성들이 자진해 시비를 가리려 할때 드보라를 찾아가고 전시 상황엔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지략가로 실질적인 지휘관역할을 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우면과위가 아닌가.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나안장군 시스라와 그의 무리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하지 않으면 출정하지 않겠다고 발을 뻐다. 이런 소심한 장군을 책망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격려하며 이끌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다.

이런 드보라의 용기는 남자들을 압도한다. 지혜와 신앙을 겸비한 그녀의 용기있는 결단력은 민족을 구하고 40년 태평성대를 만든다. 사사시대 중 유일한 여성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사사기5:7) 라는 최대의 찬사와 지지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국모로 추앙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 남자도 아닌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하며 살았을까,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생각하면 가



슴이 맥먹하기조차 한다. 쉽지 않은 길이고 힘든 싸움이였을 것이다.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잔다르크라 표현하는 말도 있으나 드보라는 단순한 여전사가 아니다. 강력한 철병거를 진흙밭에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도망가던 가나안 병사들을 폭우로 불어낸 키손 강에 수장시킨 비상한 전략을 세운 뛰어난 군사적 전략가이며 승전가를 통해 참전한 족속과 그렇지 않은 족속을 거론하여 힘을 집중시키는 정치력도 발휘한다. 무엇보다도 소심하여 자신 뒤로 숨으려 하는 바락을 격려하여 전면에 내세우고 오히려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섬세함과 겸손함까지 겸비했으니 드보라는 막강한 가나안의 20년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진정한 우면 파워였다. 다른 사사가 자신이 속한 족속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드보라는 전 유대인을 하나로 묶

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계승함으로 지금 역사가들은 이때를 드보라시대라 칭할 만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드보라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라. 떨쳐 일어나라 일어나 노래를 불라라.” 사사기 5장은 고대 시문학의 백미라 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로써 승리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림과 동시에 승전을 통해 응집된 힘이 흩어지기 전에 집약시켜 외세로 부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했다. 이러한 드보라의 막강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만한 통치력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에 기초한다. 드보라가 사사로 지목되어 예언도 한 것이 아니라 예언가에서 사사로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점은 드보라의 첫 사역인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속한 곳에서 모순이 없는 신앙을 쌓았기 때문에 폭발력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다. 어쩌면 드보라에게 여성이라는 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였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역할은 점점 강화되는 요즘,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다음세대를 이끌 자녀들의 정신적이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 현대여성의 첫번째 역할이라면 드보라처럼 지혜롭고 부드러운 듯 강력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된 우면과위를 꿈꿔보는 것은 어떨지...

| 채은영 기자 |

주안에코우우
비즈니스소개

황은숙 (Deborah)
Pro HP
COWAY USA INC.
Cell : (949) 874-8825
Fax : (714) 739-4354
7800 Commonwealth Ave. #201
Buena Park, CA 90621
www.coway-usa.com

- * Bidet
- * Water Purifier
- * Air Purifier
- * Water Softener

NEWSTAR Realty & Inv. 뉴스스타부동산
www.newstarrealty.com
Cindy Lee | Vice President
C | 818.621.8949
O | 818.881.2300 [F] 818.495.2500
E | cindylee@newstarrealty.com
cindyleetm@gmail.com
17559 Chatsworth St. Granada Hills, CA 91344
BRE#: 01303681
MLS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Sang B. Kwon 권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 생명보험
- 건강보험
- 은퇴연금
- 사업세보험
- 주택보험
- 자동차보험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지혜로운 대화 방법

1.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잠언 18:13, 야고보서 1:19)
2. 말하기를 더디 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잠언 15:23, 28, 21:23, 29:20)
3.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야고보서 1:19)
4.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한다.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4:15, 25)
5.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잠언 17:14, 20:3, 로마서 13:13)
6.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잠언 14:29, 15:1, 25:15, 29:11, 에베소서 4:26, 31)
7.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런 후에는 그것을 깨끗이 있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5:16, 잠언 17:9, 에베소서 4:32, 골로새서 3:13)
8.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잠언 10:19, 17:9, 20:5)
9.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로마서 14:13, 갈라디아서 6:1)
10. 누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로마서 12:17, 21, 베드로전서 2:23, 3:9)

은혜의 말씀 '믿음의 대가'

믿음의 대가 갈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빛이 있었다.

그 첫째는 보는 것이 달랐다. 정탐군 12명중 10명은 크고 힘센 적들을 보았지만 갈렘과 여호수아는 주님 주신 말씀의 눈으로 적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았다.

믿음으로 노아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고 아브라함은 부유한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흠모하며 살았으며 모세는 애굽의 명예와 권세에 매이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믿음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 현실을 보면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보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 둘째는 말씀을 기준 삼았다. 헤브론 성은 크고 견고하며 높은 산지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 갈렘의 힘으로 정복이 불가능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산지는 갈렘의 것이 되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진리의 길을 연습한 느헤미야는 정말 멋진 믿음의 대가 급하다고, 절박하다고 현실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진짜 사나이, 믿음의 사나이!

그 셋째는 온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갈렘은 그가 밟는 땅이 모두 그의 것이 되는 큰 복을 상으로 받았다. 모세, 갈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대가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바뀐다.

적당히 대응하는 믿음은 마귀가 좋아하는 비품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은 마귀를 쫓아내는 정품 양치는 일도 목숨 걸고 한 다윗처럼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 하늘 보좌 움직이는 능력이다.

<최혁 목사님이 믿음의 대가(갈렘)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말씀; 수 14:9-22, 관령성구 민13, 히11, 신1:36, 느 7:4, 속8:5>

조성운 집사

■ 소그룹 모임 쿠킹 아이디어

소고기 오븐 통구이(Roast Beef)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새해엔 조리하기 쉽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 로우스트 비프로 식탁을 마련하신다면 어떨까요? 소고기 오븐 통구이를 메인요리로 준비하시고 구운감자, 아채구이, 실라드와 빵이나 잠곡밥으로 상을 차리신다면 훌륭한 파티 식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 재료 구이용 소고기(가능하다면 뼈가 있고 고기사이에 대리석같이 기름의 무늬가 있는 Prime Rib eye 나 Choice Rib eye로 한사람에 1/2 파운드씩 준비), 올리브 오일, 소금 조금, 후추가루 조금, 통마늘 길이로 자른 것, 양파 다진 것, 고기 온도계-가까운 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2. 만드는 법 1) 굵기 1-2 일전 고기 겉의 기름기를 제거한

- 다. 2) 드문드문 칼집을 내어 준비한 마늘을 끼워 넣는다.
- 3) 소금 과 후추를 고기에 바르고 문지른다. 4) 양파 다진 것을 바른 후 호일이나 플라스틱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5) 굵기 2-3 시간전 냉장고에서 꺼내어 랩을 풀어 고기가 실내온도가 되도록 한다. 6) 고기에 올리브 오일을 바른 후 발침이 있는 팬 위에 올려 놓는다. 7) 오븐을 500도로 예열한다. 8) 500도로 예열된 오븐 중앙에 넣어 20분동안 고기의 겉을 익힌다. 9) 20분 후 온도를 325 도로 줄이고 고기의 속 깊은 곳의 온도가 145도(약간 익은것-raw) 155도(보통 익힘-med) 165도(잘 익힘-well done) 될 때까지 익힌다. 파운드당 11-15 분 정도 소요된다. 10) 고기 속의 온도가 원하는 온도가 되었을 때 오븐에서 고기를 꺼내 호일로 느슨하게 씌운 후 30분 기다린 후 원하는 두께로 썰어

준비한 Gravy와 함께 상에 올린다.

그레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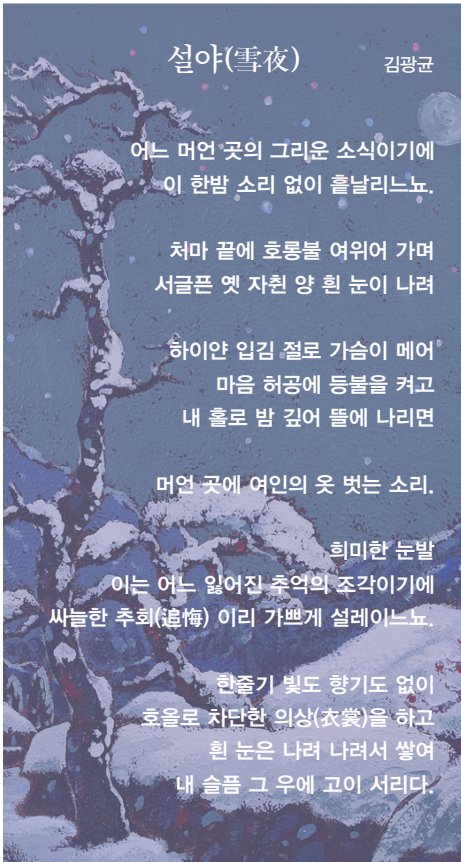
- 1) 30분 기다리는동안 팬에 떨어진 고기 국물로 그레비를 만든다. 2) 물 4컵에 고기 구울 때 떨어진 고기물, 양파 다진 것, 소금, 후추, 버섯 스프 1 컵(식성대로 없어도 됨) 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중간으로 줄인다. 3) 물 1컵에 밀가루 1 table spoon 넣고 잘저은 후 2번에 넣고 국물이 진득해질 때까지 잘 저으면서 익힌 후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박창신 기자

■ 문학과 삶

쓸쓸하고 아픈 삶의 흔적 위에 눈발이 내려 내려...



설야(雪夜) 김광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뇨.

처마 끝에 호롱불 여워어 가며
서글픈 옛 차천 양 흰 눈이 내려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매어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나리면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

희미한 눈발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호올로 차단한 의상(衣裳)을 하고
흰 눈은 내려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우에 고이 서리다.

마지막 한장만 남아버린 얇은 달력, 어느덧 세월
에 떠밀려 세모를 맞는 마음이, 마치소리없이 흩
날리는 하얀 눈발된 듯 그리웁고 쓸쓸하다. 국화
꽃 저버린 겨울 뜨락에 서면 시인이 아니라해도
가슴에 저머오는 외로움이 느껴질진대, 하물며 한
해의 끝자락을 잡은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훈
훈히 덮일수 있을까? 마음이 춥다. 유별나게 늦가
을, 초겨울만 되면 멍치풀이 아려오는 이 쓸쓸함
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 감성 그대로이다.
겨울이 되어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와도,
눈구경을 할 수 없는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 그래
도 가끔 탐스럽게 내리던 하얀 눈 꽃이 그리워 질
때면 나는 학창시절 그리도 아련히 가슴을 설레
며 읽던 김광균의 <설야>를 다시 가슴 속에서 꺼
내어 비밀스레 음미해보곤 한다. 그러면 나는 어
느 닿을 수 없는 먼 먼 그리움으로 한밤에 소리
없는 흰 눈발되어 밤 깊은 뜰에 내려서 보는 것
이다. 마음 허공에 꽃등불 밝혀들고서... 그 적막
한 하얀 밤. 아! 그러면 어디선가 들리는듯한 어
느 먼 곳의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니... 이 얼마나
사무치는 그리움의 표현인가! 나는 이 대목을 읽
을 때 마다 영문도 모르는채 아파하곤 했었다. 어
느 잃어버린 추억의 조각처럼 싸늘하게 내려 쌓
이는 흰 눈이 시인에게 아픔이었다면 내게는 방
향없는 그리움으로 밤 잠을 설치기도 했었으니...
그 후로 세월은 참 많이도 흘렀다. 아찔 기억에
서도 멀리 떠나려간 지난 세월들, 그리고 남겨진

삶의 파편들은 이젠 남의 일인양, 아련한 저편 세
계의 일들처럼 느껴 질 만큼 몸도 마음도 떠나와
있는 나의 자화상!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시간의
날개에 실려 저물어 가는 한해의 언덕에 올라서
서 또 흘러가 버린 365일을 뒤돌아 본다. 항상 어
김없이 넘어지면서도 또 소망해 보는 똑같은 바
람은 “향기나는 삶”을 살고왔는데... 이 시어들처
럼 그렇게 잔잔한 여음을 남기는 삶을 그리고 싶
었는데... 눈 내리는 밤, 깊은 뜰에 홀로 내려서는
사연은 묻지않아도 틀림없는 “아픔” 일 터인데도
이렇듯 순백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는 이유는,
고통도 잔잔히 소화해내는 고요한 하모니 때문이
리라. 한평생 살면서 아픔이 없는 이 누가 있겠
는가? 그러나 이렇듯 고요히 승화시킬 줄 아는 성숙
이 하얗게 쌓이는 눈 발처럼 우리 마음에 날아와
앉기를 소원해 본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파스칼은 같은
책에서 인간은 오르간이라고도 했다. 과연 조화
를 위해 애쓰는 것이 인간의 고귀함이라면, 슬픔
도 껴안으며 기쁨과 조화시켜 순결한 색채로 그
려낼 줄 아는 지혜를 이 맑고 깨끗한 시에서 유추
해 본다. 한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고요히 쌓이
는 흰 눈위에 우리 삶의 아픔도 그렇게 내려 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그
대 사이는 정녕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겠는가? 그
리움 속에서 새하얀 눈송이에 또 한번의 소망을
실어 보낸다. | 서미숙 기자 |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주간에” 2014년 12월호 원고 모집

‘주간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김경일, 조이 메기, 새라 리,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이지혜,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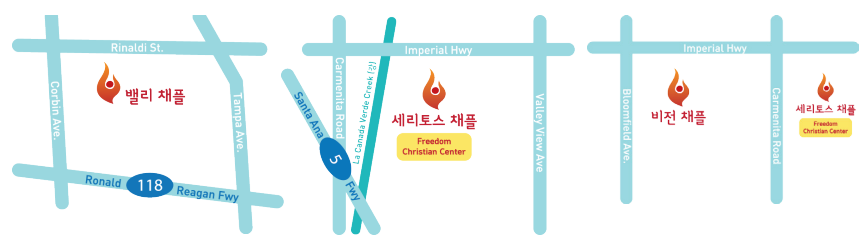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 주일 예배**
- 영성 집회**
- 새벽 예배**

세리토스채플/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오전 8:00, 9:45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